



QR코드를 통해
요셉의원과 만나세요

요셉의원



2022년 2월 제 **120-1호**

<http://www.josephclinic.org> | web.facebook.com/josephclinic1987

발행인 **홍근표** 편집 **요셉의원 편집부** 발행처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부설 요셉의원**
(우) 0730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100길 6 전화 : (02)2634-1760 FAX : (02)2677-5839 E-mail : info@josephclinic.org

2022년도 중점 추진사항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하고, 환자 진료비 지원 확대 ‘찾아가는 환자서비스’, 선우 원장 기념사업도 추진



2022년은 본원이 여러 현안을 풀어가야 하는 바쁜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지난해 하반기부터 추진해온 ‘요셉나눔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법률적 승인을 마무리하고, 본원이 위치한 쪽방촌 개발에 따른 병원 이전 계획을 수립해 상황 변화에 따라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병원 건물을 신축하거나 다른 건물로 이전하기까지는 앞으로 3~5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월 14일 본원 경당에서 열린 ‘2022년도 중점사업계획 발표회’에서는 진료 서비스 개선을 비롯한 현안을 논의하고 올해 실천할 사항들을 재확인했다. 사진 아래는 치과 진료 모습.

병원 내부적으로는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해온 환자 진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과제를 올해에도 진료 현장에 맞춰 실천해 나가게 된다. 본원 신원식 의무원장은 “최근 몇 년 간 환자 중심 진료를 목표로 편의시설과 진료 환경을 개선해 왔다”고 소개하고, “지난해부터 시행하기 시작한 의료서비스 개선과 환자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를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년도 중점 추진사항



1



4

필리핀 요셉의원 소식



8

병원 소식



12

봉사자 코너



20

국성회 소식





본원에서는 지난해부터 영등포지역 5개 병원과 협력계약을 체결하고 추가 검사나 수술 등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본인 부담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신완식 의무원장(왼쪽)이 내원 환자와 상담하고 있다.

본원이 진료 서비스 개선에 눈을 돌리게 된 것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적 상황이 향상된 데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는 이미 세계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올라있다는 평가이고, 국가 의료급여체계도 잘돼 있어 빈민층 환자들의 의료적 욕구도 그만큼 높아졌다는 진단이다.

본원 김재근 의료사업실장은 “의원급인 본원은 그동안 투약 중심의 진료를 하면서 수술이 필요한 중환자나 암환자 등은 일부 시립병원 등 안전망 병원으로 전원해 치료를 받게 했으나, 지난해부터는 영등포지역 5개 병원과도 협력계약을 체결해 추가 검사나 수술 등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본인 부담 의료비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력병원 진료비, 본원에서 부담

지난 1월 14일 본원 경당에서 열린 ‘2021년도 주요 사업실적 점검 및 2022년도 중점사업추진계획 발표회’에서는 이같은 진료 서비스 개선을 비롯한 주요 현안들을 논의하고, 올해 실천할 사항들을 재확인했다.

먼저 협력병원 환자 지원사업은 홍보가 덜 된 탓인지 실적이 높지 않다고 평가하고 개선점을 제시했다. 의료사업실에서는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의료봉사를 나오는 모든 의사분들에게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고, 진료 모니터에 안내문을 부착하는 한편, 야간 진료를 하는 봉사의 분들이 손쉽게 환자 전원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기로 했다.

본원이 올해 실시할 가장 큰 사업 중 하나는 통합의료정

보시스템(OCS, EMR) 구축이다. 본원은 현재 약 16개 진료과목을 진료하는 ‘준종합병원급’ 구조임에도 약 10년 전에 설치한 ‘의원급 진료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어 여러 가지 맞지 않는 부분이 지적돼 왔다. 종이에 환자의 진료내용을 기록하는 종이 차트를 사용하고 있는 점도 그런 사례 중 하나다. 이로 인해 진료 접수를 한 환자는 간호사나 봉사자가 1층 접수실에서 의무기록 차트를 가져올 때까지 2층 진료과 앞에서 기다려야 한다. 이어 간호사실에서 체중과 혈압 등 기본

사항을 체크한 뒤 그 내용을 종이차트에 적어 진료실로 전달할 때까지 환자와 진료 의사가 대기해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물론 종이차트를 옮겨야 하는 일손도 필요하다.



종이 의무기록지 없앤다

한 달에 서너 번 본원을 찾는다는 박모 환자(68)는 “접수를 하고 진료실과 약국 앞에서 대기할 때 접수 순서를 확인할 수가 없어 순서가 바뀌지는 않았는지, 약 처방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불안하다”고 말했다.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진료 대기실과 약국 앞에 LCD 전광판을 설치해 진료실 별 진료 순서와 약 처방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환자들의 이런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병원 측에서는 앞으로 통합의료정보 시스템에 축적된 자료를 분석해 각종 질병통계를 도출함으로써 더욱 정확한 진료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원 정운식 기획실장은 “지난해 치과에 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한 업체를 포함해 4개 업체로부터 제안을 받아 최근 제안 설명회를 마쳤다”며, “3월에 업체를 선정할 뒤 종이 의무기록지 1만여 장의 디지털화에 착수하는 한편 중형병원에 쓰이는 의료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5월 말까지는 1차로 모든 구축 작업을 마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봉사하실 의사분 모집입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해 시간을 쪼개 달려오는 100여 무료 봉사의의 선의에 의존하는 본원으로서 도와출 의사분들을 확보하는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하다.

현재 본원을 찾는 환자들은 대부분 고령의 남성들로, 고혈압과 당뇨 등 노인성 만성질환자가 많다. 이런 내과질환자 외에 치과, 정형외과, 안과, 정신건강의학과, 비뇨기과 등의 진료 요구가 많은 편이다.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실시하는 낮 진료에는 은퇴한 대학교수 몇 분과 원로의사를 중심으로 내과와 치과 진료 등이 이뤄지고 있으나,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는 밤 진료에는 내과와 치과 외에 정형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안과, 피부과, 비뇨기과, 이비인후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한의과 등의 진료가 진행된다.

이 밤 진료에는 의료기관에 몸담고 있는 현직 교수나 개원의, 봉직의 등이 병원 진료를 끝내고 서둘러 봉사를 나옴에 있으나, 간혹 급한 사정이 있을 때는 대신 진료를 맡을 전문의를 확보하지 못해 진료를 걸려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신완식 의무원장은 “무료 의료봉사는 누구에게 강요할 수도 없는 일이고, 상당수가 선후배 혹은 지인 간 권유에 의해서 이뤄지기 때문에 기존 봉사의 선생님들과 가톨릭 의료협회를 비롯해 본원이 위치한 영등포구 의사회와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협조를 구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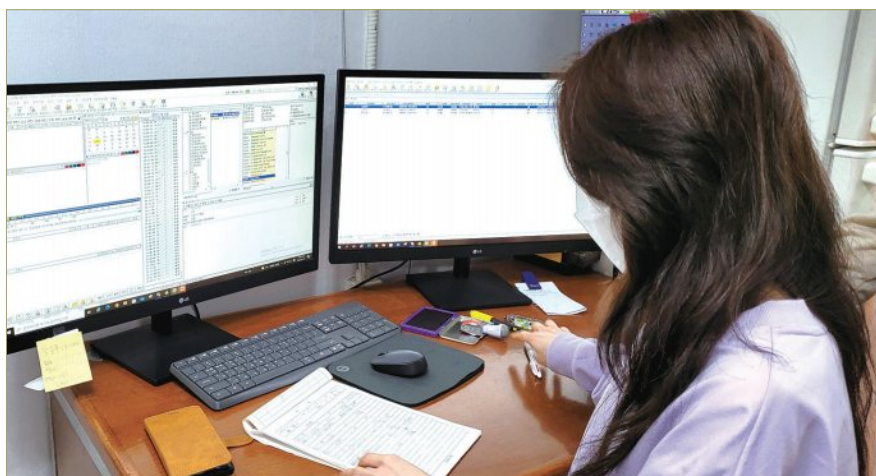
치과, 주간 진료 확대 예정



내과 다음으로 가장 많은 환자가 몰리는 치과는 비용이 많이 드는 보철과 틀니를 무료로 장착해 주고 있어 찾는 이가 많다. 환자가 늘다 보니 진료 날짜를 잡는 대기 기간도 늘어나 올해에는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김태은 치과팀장은 “야간 진료 중심에서 환자들이 선호하는 주간 진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원 의료사업실에서는 영등포 지역 치과나 봉사의 선생님의 치과 병원과 연계해 치료를 진행한 뒤, 환자 본인 부담금을 지원받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본원에 처음 내원하는 환자들과 상담을 통해 지원을 결정하는 환자상담팀도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 상담시간을 늘릴 계획이다. 그동안은 환자 상담시간이 낮시간에



올 상반기에 중점을 두고 시행할 사업은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종이 의무기록지를 없애 환자 대기시간을 줄이는 한편, 환자들이 진료실 별 치료 순서와 약 처방 순서를 전광판을 통해 알 수 있어 환자 편의성이 크게 높아지게 된다.

한정돼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저녁 진료시간에도 상담을 실시해 신규 환자와 재상담 환자들의 시간 선택 폭을 넓히게 됐다.

‘최선의 진료를 베풀기 위해’



적극적인 환자 발굴과 함께 ‘찾아가는 환자 서비스’도 올해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추진된다. 정 기획실장은 “서울대교구 빈첸시오회와 연계해 빈첸시오 회원들이 독거노인 환자와 방치된 외국인 환자 등 소외계층 가정 방문 시 본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며, “몸이 불편한 환자 이송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에는 본원 설립자인 고 선우경식 원장 기념사업 준비위원회가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고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정지 작업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기념사업회 사무실을 마련하고 ‘요셉의 집’에 유품 전시실을 이전 설치하는 등 기념사업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2월 초 본원에 부임해 요셉나눔재단법인 및 전반적인 병원 운영을 총괄하게 된 신임 홍근표 신부는 “환자들에게 최선의 진료를 베풀다”는 고 선우경식 선생님의 뜻을 이어 진료 서비스 개선 등 요셉의원의 현안을 모든 구성원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풀어나가겠다”고 밝히고, “하느님의 도우심 안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 거듭나는 요셉의원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2021. 12~2022. 1



필리핀 요셉의원 소식



장경근 신부의

필리핀 현지통신

2022년 필리핀요셉의원의 소망

“올해에는 한국에서 의료봉사 올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019년 우리나라 가톨릭의료협회 ‘사랑의 날개’ 의료봉사팀이 필리핀 성당에 함께 모여 포즈를 취했다. 사진 오른쪽은 한국 의료봉사팀이 필리핀 치과 환자를 치료하는 모습.

지난 2년간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곳 필리핀 요셉의원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결혼 가정에 식료품 지원’과 ‘새집 지어주기 사업’을 새로 시작하긴 했지만 반면에 바이러스 확진자가 많이 나올 때는 몇 달 동안 진료소를 열지 못한 적도 있었고, 또한 장학생들과 매주 드리던 미사와 주일학교는 아직도 다시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은 진료소를 주 2회 다시 열고 또한 원격진료를 통해 환자들을 돌보고 있기는 하지만 완전히 정상화되지는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아쉬움은 한국에서 의료팀이 들어오지 못해서 여러 지역 방문 진료를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곳 마닐라 북쪽 칼로칸 교구에는 크게 나뉘 총 18개 마을에 빈민촌이 형성돼 있다. 보통 거의 바닷가 옆이나 강가 옆 늪지대, 아니면 쓰레기장 옆에 판자촌들이 들어서 있다. 이 마을들은 보통 변두리 지역에 고립돼 있다 보니 주민들이 외부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도 강하고 두려움도 많은 듯하다. 그래서 사람들 대다수가 병에 걸려도 웬만해서는 병원을 찾지 않고 혼자 앓거나 나중에 병이 커져서 손 댈 수도 없을 때가 돼서야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 오는 의료팀들은 이런 이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된다.

이곳 필리핀은 인구의 70% 이상이 가톨릭을 믿는다. 그러다 보니 마을마다 성당이나 공소가 없는 곳이 없다. 1년에 한국에서 의료 봉사를 오시는 팀들이 5~6개 정도 된다. 그러면 18개 마을들을 최소 1년에 한 번씩 갈 수 있다. 마을 곳곳의 공소나 성당과 협력하여 방문 진료를 할

수 있고, 마을마다 숨겨져 있는 환자를 발견해서 1차 진료를 하고 이어 후속 조치를 하는 것이 이곳 요셉의원의 가장 큰 임무 중 하나이다.



생활 묵상

‘정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은 도와달라 하지 않는다’

새집 지어주기를 시작한 지 어느새 6개월이 훌쩍 넘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일정이 미뤄지곤 있지만 그래도 꾸준히 진행돼 현재 12번째 집을 짓고 있다.

처음에는 부셔진 집이 있으면 신청하라고 여기저기 공고를 냈다. 그러자 하루 만에 100여 집이 넘게 신청을 했다. 신청한 집들을 방문해 보니 형편이 그리 나빠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어떤 집들은 주변 다른 집들에 비해 더 근사해 보이는데도 신청을 한 게 아닌가. 이런 방법으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이 마을 저 마을 돌면서 직접 방문해 인터뷰하는 방법을 쓰기로 했다.

인터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정말 가난한 집들은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있고, 또한 그런 곳 사람들은 낯선 이에 대한 경계심

치과 진료도 이곳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마취제의 가격이 비싸서인지 치아 하나 뽑는데 약 500페소(한화 1만 2000원) 정도 든다. 하루 수입이 고작해야 200~300페소인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돈이다. 치아가 썩으면 매우 고통스러운데 아파도 참고 지낼 수밖에 없다. 방문 진료를 하면 한국에서 온 치과 선생님들은 팔이 저리다고 하신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치아를 뽑을 일이 많지 않은데 여기서는 하루에 몇 십개씩 뽑아야 하기 때문이다. 어떤 환자는 이를 다 뽑아서 하나도 없는데도 오히려 너무 좋아한다. 얼마나 아팠으면 이를 다 뽑았는데 행복해 할까.

언젠가 치과 봉사의 한 분이 수많은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환자 한 명을 40분 동안 진료하고 계시길래 가봤더니 10대 소녀 환자를 붙들고 계셨

다. 썩어서 새까맣게 변한 앞니들을 완벽하게 재생(?)해 내셨는데 그 기술에 나도 깜짝 놀랐다. 이 소녀는 거울에 비친 예쁜이 이를 보



돈이 없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이곳 필리핀 빈민들에게 한국 의료봉사진은 커다란 희망이다. 봉사팀이 치과(위)와 외과 진료(아래)를 하고 있다.

니 기빠서 눈물을 뚝뚝 흘렸다. 이처럼 사람은 많고 진료 시간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다른 진료는 다 마쳐도 치과 진료는 밤늦게까지 계속되는 경우가 많다. 치과 선생님께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물으면 ‘아뇨, 이리려고 여기 왔는데요’ 라고 대답하신다.

그러나 지난 2년간은 이런 방문 진료를 실시할 수가 없었다. 가끔 홀로 마을을 돌아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자기 집에 같이 가자고 하는 경우가 있다. 며칠 전 마을을 방문했다가 어떤 아주머니가 딸이 아프다고 해서 따라가보니 이미 암이 온몸으로 퍼져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다. 또 어떤 홀로 사는 할아버지는 당뇨병에 걸렸는데 약을 먹지 못해서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했었다.

올해 이곳 필리핀 요셉의원에서의 가

장 큰 바람은 이런 방문 진료를 재개하는 일이다.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올해 연말쯤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이 매우 큰 편이다. 이해는 되었다. 갑자기 어떤 이방인이 신부라고 찾아와서 집을 지어주겠다고 하니 얼마나 의심스럽고 황당했을까? 한참을 이야기하고 나서 수궁하면 다행이고, 수궁을 못하면 할 수 없는 노릇이다. 집짓기를 시작하면서 깨달은 점이 있다. 정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은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게 시작해 약 2주간의 공사가 끝나면 십자가와 성수를 들고 새 집 축성을 하러 간다. 새집이 생긴 것에 매우 기뻐하고 그래서 나를 보면 고마워할 줄 알았는데, 이번에도 예상이 틀렸다. 내가 신부가 입는 까만색 클러치 셔츠를 입어서였을까, 대부분 굳은 표정으로 아무런 말이 없다. ‘도대체 분위기가 왜 이렇지?’ 나중엔 간호사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는 ‘새집 지어 주고 빼앗아갈까봐 무서웠다’고 한다. 집짓기를 시작하면서 깨달은 두 번째 사실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남의 호의가 무서울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아주 쉽게 고마움을 표시한다. 전혀 모르는 사람의 아주 작은 호의에도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고, 식당에서 손님으로서 아주 당연히 받는 서비스에도 고마움을 표시한다. 하지만 고맙다는 작은 인사도 여유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 같다.

벧자타라고 불리는 연못이 있었다. 거기에는 서른여덟 해나 앓는 사

람도 주랑에 누워있었다. 그를 알아보고 먼저 다가온 분은 예수님이였다. 그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한 적이 없었는데도 말이다. 예수님이 물었다. “건강해지고 싶으냐?” 그러나 그의 대답은 “예, 건강해지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가 아니었다. 그가 대답했다. “선생님, 물이 출렁거릴 때에 저를 못 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동안에 다른 이가 저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네 들것을 들고 걸어가거라.”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의 병은 말끔히 나았다. 그러나 그는 고맙다는 인사는커녕 병을 낫게 해주신 분이 누구인지 그 이름조차 알지 못했다.(요한 5장 1절 ~13절)

이곳 필리핀도 그렇지만 사실 우리나라에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 도와달라는 말을 못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관심도 받지 못한 채 고립돼 살아가는 사람도 많다. 독거노인이 홀로 살다가 숨졌는데 몇 달 만에 발견되었다는 이야기는 이제 뉴스거리도 아니다. 이들을 알아보고 찾아 나서는 것이 앞으로의 교회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명동 밥집을 보면 참 기분이 좋다. 명동뿐 아니라 성당 밥집, 성당 도시락이 되어서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어떨까.

급식소 이야기

‘팬데믹 2년간 급식소는 쉬지 않았다’

지난 2년 동안의 팬데믹 속에서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왔던 일이 있다. 바로 아이들을 위한 무료급식소 운영이다. 주 5회 3개 마을에 2세부터 9세까지 영양실조 아이들을 대상으로 점심을 나눠주는 일이다. 중간에 운영 상 달라진 점이 있다면 전에는 마을 공터에 모여서 함께 식사를 했으나 지금은 집으로 가져가서

먹는다는 점이다. 또한 전에는 180 ~ 200명 수준이었는데 비해 지금은 그 숫자가 많아져서 현재 262명의 아이들이 점심을 먹는다. 물가는 계속 상승하고 부모들은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인지 새로 가입을 원하는 아이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

262인분을 매일 만들다 보니 이른 새벽 장보기부터 음식 준비까지 매우 분주하다. 요리를 담당하는 자매 마르티스와 에블린이 매일 수고해주고 있고, 또한 이곳 칼로칸 교구에서 리디아 수녀님과 폴 수녀님을 파견해 급식소 운영에 도움을 주고 있다.

메뉴는 프라이드치킨부터 샌드위치까지 매우 다양하다.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메뉴는 ‘아도봉 마늘’이다. 닭을 간장에 조려서 요리하는데 맛이 우리나라 찜닭과 비슷하다. 영양의 균형을 위해 고기로 된 메뉴에는 여러 채소들을 함께 넣어서 조리하지만, 아이들은 채소는 골라내고 고기만 먹는다. 어렸을 적 어머니께서 도시락으로 콩밥을 싸 주시면 콩은 한 쪽으로 골라내고 밥만 먹었던 기억이 떠오른다. 영양 상태도 부족한 아이들이 저러고 있으니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이젠 전



세계적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인가 보다.

오전 11시까지 준비된 음식은 세 군데로 나눠 담아서 3개 지역으로 배달한다. 배송된 곳에서는 급식을 받는 아동의 부모나 친척 중 한 명이 나와서 밥을 타간다.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아이들은 아직까지 외출 금지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집에 부모나 돌봐줄 친척이 있는 아이들은 다

행이지만, 집에 외부모만 있을 때가 문제다. 여기서는 ‘싱글 페런트(single parent)’라고 부르는데, 일하며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를 일컫는다. 이 경우에 어머니나 아버지는 아침에 출근을 하고 아이들은 집에 남겨진다. 이런 아이들은 무료급식소에 가입시켜도 잘 오지 않는다.

바로 이런 아이들이 가장 소외된 친구들이 아닌가 싶다. 마닐라 동쪽 산 마테오시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예수 성심 전교 수녀님들은 이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무료급식소와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다. 크리스마스 때는 각 급식소마다 파티가 있다. 아이들이 팀을 이뤄 댄스 경연대회도 하고, 성탄 과자 선물과 특별식으로 프라이드 치킨과 스파게티가 나온다. 재작년에는 버스에 수십 명씩 태워서 줄리비(아이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레스토랑)에 데려간 적도 있다. 아마 이 친구들에게 그날은 1년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일 것이다. 물론 지난 2년 동안은 하지 못했지만 올해 크리스마스에는 모두가 함께 즐기고 기뻐할 수 있으리라 희망해 본다.

+ 2021년 12월 ~ 2022년 1월 신규 후원회원(27명)

- 강규화 ● 강순옥 ● 고철호 ● 김현선
- 동대문시장성당라파엘 ● 문인숙 ● 박성준 ● 박원주 ● 사랑합니다
- 손경란 ● 신승화 ● 안수현 ● 여마리아 ● 연말구제요셉필 ● 유영란
- 이남순 ● 이연옥 ● 이영호 ● 이은옥 ● 이정옥 ● 이철희 ● 익명
- 정선영 ● 정정애 ● 조현관 ● 최인춘 ● 하은용

+ 2021년도 필리핀요셉의원을 후원해주신 분들(추가)

- 2009년 사제서품 동기들 ● 강순옥 ● 마경자 ● 박광기
- 배태경 ● 손경란 ● 우세리 ● 이은옥 ● 정규홍 ● 조현찬 ● 홍경숙

+ 2021년 12월 ~ 2022년 1월 진료 및 급식 통계

- 진료 704명
- 타병원 처방전 제출시 약처방 지원 215명 ● 급식 7,805명

+ 개원 이후 총 진료 및 급식 인원(2022년 1월 현재)

- 진료 85,338명 ● 급식 402,162명

+ 필리핀요셉의원 후원 계좌

☎ 070-4688-3412

아래 계좌로 송금하시거나 홈페이지(<http://philjclinic.org>)를 통해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국민은행	364301-04-150303	천주교서울대교구 필리핀요셉의원후원회
우리은행	1005-201-940450	천주교서울대교구 필리핀요셉의원후원회

✳
미사
안내

매월 넷째 주 금요일 11:30 요셉의원 내 경당
미사지향 : 고 최영식 마티아 Fr. 및
필리핀요셉의원 후원자들을 위하여



쪽방촌 향기

“ 쪽방 주민들의 고독감 줄여줄 수 있는 사회활동 지원 필요 ”

쪽방촌 환우들의 합창을 듣고 수준이 생각했던 것 이상이어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음악을 지도했던 김군자 교수님과 그 제자 분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승

본원 내과봉사의

50년 전인 1972년 봄, 가톨릭의대 가톨릭학생회가 주관해 경기 시흥 낙골(현재 관악구 신림동 난곡)에서 주말 무료진료를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지도신부님이 가톨릭의대 성모병원에서 병원 사목을 하시던 이문주 신부님이셨습니다.

회원 10여 명은 토요일 오후에 모여 약품 준비며, 일회용 주사기가 없던 시절이라 주사기 소독이며 진료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선배 의사를 모시고 손엔 진료용 물품을 가득 든 채 시내버스를 타고 현지로 향했습니다. 임시 진료소로 사용하는 성당의 공소가 언덕 위에 있어 모두들 힘겹게 언덕을 올라가 혈압계와 청진기, 주사기와 각종 약품 등을 펼쳐놓고 진료 준비를 마친 뒤, 기다리던 환자분들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힘들게 진료 봉사를 갔지만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환자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나면 모두들 뿌듯한 마음을 간직한 채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렇게 3년 정도 진료를 하다가 주말 진료소가 신림동 산동네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때 저는 군 복무 중이었는데, 신림동 진료소에 선우 경식 선배님이 자주 나오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인연으로 병원 일에서 은퇴한 뒤 자연스럽게 요셉의원을 찾게 됐습니다.

요셉의원에 와 보니 돌아가신 선우 선배님에 이어 원장으로 계신 이문주 신부님이 거의 50년이 지났는데도 단번에 알아보시고는, “당신, 동해바다서 나 물 먹인 사람 아냐?”하며 반겨주셨습니다. 당시 강원도 정선에서 하계 진료봉사 중 일행이 진료 후 부근 바닷가에서 휴식 중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얘기하신 겁니다.

요셉의원에서 봉사한 지 올해로 6년째에 접어들습니다. 환자 진료를 하다 보면 보람도 느끼지만 안타까울 때가 더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당뇨 환자가 음식 조절을 해야 하는데 보호시설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에서 주는 대로 먹어야 해 음식을 조절할 수 없을 때라든가, 위가 안 좋은 환자가 좀 호전되는가 싶으면 다시 술을 많이 마셔 악화할 때, 그리고 기관지염 환자가 담배를 못 끊어 염증이 지속될 때 등 여러 상황을 마주합니다.

그런 가운데 큰 감동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3년 전 성탄절을 앞두고 요셉의원 음악치료 교실에서 주관한 ‘사랑의 음악회’에 노숙인 및 쪽방촌 환우들과 함께 저도 색소폰 연주자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쪽방촌 환우들의 합창을 듣고 수준이 생각했던 것 이상이어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음악을 지도했던 김군자 교수님과 그 제자 분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합창에 참여했던 한 환자분은 저에게 계속 진료를 받던 분이어서 종종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서울 모 법대를 졸업했다는 그분은 남의 빚보증을 섰다가 잘못되는 바람에 노숙인으로 전락해 오랫동안 힘든 생활을 하다가, 요셉의원 덕분에 다소나마 안정을 찾았다고 합니다.

앞으로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면 요셉의원에서 이런 음악치료나 인문학 강좌, 상담 치료 등을 활성화하고, 외로워서 술에 의존하는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들의 고독을 줄여줄 수 있는 환우 모임 같은 사회적 활동 지원에도 더 큰 노력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요셉의원소식



1월 3일 시무미사 봉헌

2022년 새해 첫 업무가 시작되는 1월 3일 본원 전 직원은 3층 경당에서 아침기도 겸 시무식을 가진 데 이어 오후 5시에는 조해봉 원장신부(2월 8일 이임)의 집전으로 시무미사를 봉헌했다. 조 원장신부는 강론에서 “우리 각자의 삶의 여정은 다르지만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한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그분들에게 주어지는 많은 치유와 은총은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함께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면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좀 더 다잡아볼 수 있지 않

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원장신부는 이어 “여러분들도 오늘 복음말씀처럼 예수께서 공생할을 시작하면서 보여준 복음적 삶의 첫 걸음에 있다는 것을 항상 되새겨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하고, “오는 14일 있을 각 부서 새해 사업계획 발표회에서는 먼저 환자를 중심에 두고 올 한 해 동안 해야 할 일을 미래지향적으로 점검해 보고, 우리의 업무 편의성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는 아이디어도 많이 창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본원 담당 신부 이취임 미사 거행

신임 홍근표 신부 부임,
전임 조해봉 신부 안식년

지난 5년 동안 본원을 이끌어온 조해봉 원장신부가 2월 7일 이임 미사를 끝으로 퇴임하고, 이튿날인 8일 신임 홍근표 신부가 취임미사 봉헌과 함께 본원에서의 첫 업무를 시작했다. 1월 말 서울대교구 사제 인사 발령에 따라 ‘요셉나눔재단법인 담당 사제’로 부임한 홍 신

부는 요셉나눔재단법인에 대한 법적 승인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이어서 일단 담당 사제로서 본원 운영을 맡게 됐다. 앞으로 재단에 대한 법적 승인이 완료되면 ‘요셉나눔재단법인 상임이사’로서 재단 산하 요셉의원과 필리핀요셉의원 및 국제성경사도직후원회 등을 총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취임 강론 참조).



요셉나눔재단법인 담당 사제로 부임한 홍근표 신부가 2월 8일 본원에서의 첫 미사를 봉헌하고 있다.

안식년을 갖게 되는 조 원장신부는 이임 미사 강론에서 다음과 같은 요지의 이임사를 했다.

전임 조 원장신부는 지난 날 사회사목 분야에서 쌓아온 역량을 심보 발휘해 열과 성을 다해 본원을 이끌었다. 본원의 조직과 운영 방식을 체계화하고, 환자 재활 및 자활을 위한 ‘요셉의 집’ 확보, 요셉나눔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토대 마련 등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내실을 기하며 본원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이다. 이임 뒤

선우 선생님은 하느님 사랑을 더없이 크게 실천하시면서 그 의미를 내보이셨고, 하느님께서는 이런 선우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저도 또한 그 의미와 가치를 조금이라도 더 알게 되는 과정과 계기를 맞이했습니다.

여기 함께 계신 여러분들도 바오로 사



홍근표 신부 취임 강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 위해 거듭나는 요셉의원 일궈갑시다”



예전부터 알고 있었고, 또 오고 싶었던 이곳 요셉의원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게 돼 무척 반갑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런 반가움에 앞서 앞으로 제가 잘 해나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2년 전 코로나가 한창 창궐할 때 바티칸 광장에서 노숙인 200여 명에게 빵을 나눠주는 수녀님들 기사를 바티칸 기관지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기자가 '코로나에 걸리면 죽을 수도 있는 엄중한 시기에 어떻게 빵을 나눠줄 수 있느냐고 물으니 그 수녀님들은 '아무리 위험해도 사람을 굶게 할 수가 없지 않느냐'며 '그래서 마스크를 두 장 쓰고 빵을 나누고 있다'는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 수녀님들이 바로 한국분들이어서 뿌듯한 자부심이 솟았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돼야 할 텐데,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과연 세상이,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바뀔까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코로나 시대 이후에도 교회가 안주하는 삶을 산다면 성당에 나오는 신자 수가 줄고 따라서 교회 운영도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럴수록 더욱 적극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돕는 교회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용기를 내서 이 자리에 자원했습니다.

저는 이제 시작이고, 여러분들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일을 곳곳이 해오셨으니 많은 축복이 따르리라 확신합니다. 저도 비록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드리고 싶고, 많이 배워서 요셉의원이 정말 하느님의 뜻에 맞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올해는 김수환 추기경님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저는 김추기경님이 교구장으로 계실 때 사제 서품을 받았고, 한 때 지근거리에서 모신 적도 있습니다. 이번에 부임하면서 특히 감회가 새로웠던 것은 김 추기경님께서 바로 가난한 이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실천하셨기 때문입니다. 추기경님께서 요셉의원을 세우신 선우 경식 선생님을 아끼고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것도 그런 마음과 뜻을 같이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김 추기경님과 선우 선생님을 생각하며, 두 분 모두 요셉의원의 앞 길을 인도하는 큰 빛이 돼 주시고, 하느님의 도움 안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 거듭 나는 우리 요셉의원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실천합니다.

■ 홍근표 신부 약력

- 1988년 2월 사제서품 ● 2004년 9월 세종로성당 주임신부 ● 2010년 2월 서울대교구 사목국 부국장
- 2011년 8월 종로성당 주임신부 ● 2015년 8월 서울대교구 사무처장

도가 부르심을 받은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한 여러분의 모습은 바로 선우 선생님의 뜻과 의미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분명하며, 거기에 함께 할 수 있었음에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하느님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 기적이 일어나게끔 노력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야말로 바로 요셉의원의 참 모습으로서 세상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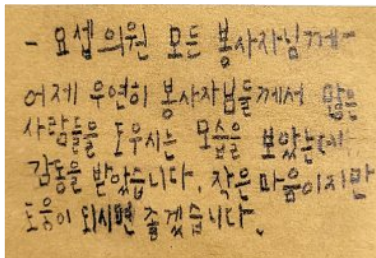
지난 5년간 본원 원장신부로 헌신한 조해봉 신부가 2월 7일 이임 미사를 마치고 본원 직원과 봉사자들이 마련한 감사패와 편지를 전달받았다.

미와 가치를 느끼게 하는 교훈을 선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고 보잘 것 없고 부족한 모습으로 다가가는 이런 모습들이 언제나 당신 사랑의 은총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며, 여러분들도 생각날 때 저를 기억해 주신다면 저 역시 사랑의 의미를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함께 할 수 있어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큰 정성으로 다가온 훈훈한 후원의 손길



2022년 1월 3일 본원 직원은 새해 첫 출근길에 현관에 끼워진 봉투와 메모지를 발견했다. 5만3000원이 들어있는 흰 봉투에 붙여진 메모에는 '요셉의원 모든 봉사자님께'라는 제하에 "어제 우연히 봉사자님들이 많은 사람들을 돕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 작은 마음이지만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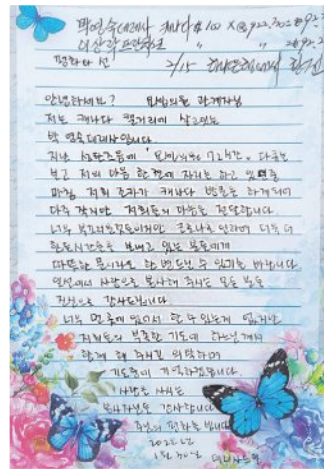
연초인 1~2월에는 여러 후원자들이 성
금과 물품을 보내왔다. 할머니가 한푼 두푼
정성들여 모은 돼지저금통을 보내주시는가



하면, 서울 서초동에 사는 문병섭 후원자는 본원을 방문해 노후자금 중 1000만원을 ‘어려운 분들을 위해 쓰시라’며 내어놓았다.

1월 30일에는 캐나다에 거주하는 박영숙(데레사) 씨와 이상락(프란치스코) 씨가 현지지를 방문한 조카를 통해 정성이 담긴 편지와 함께 각각 100 캐나다 달러를 보내왔다.

또 2월 초에는 형제가 본원을 찾아 아버지가 전해달라고 했으며 시가 400만 원 상



당의 귀중품을 전달하고, 본인들도 각각 5만원씩을 기부했다.

본원 내원 환자 수,
내과 치과 정형외과 정신과 순

본원 의무사업실에서 2021년도 진료
통계를 분석한 결과, 본원에 내원하는 환
자들은 내과가 가장 많은 49.2%(5,93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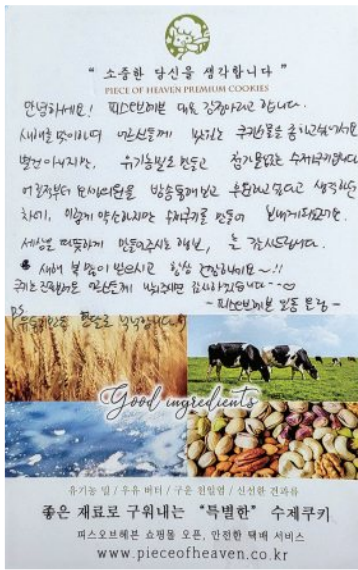
을 기록했고, 이어 치과 13.8%(1,664명), 정형외과 9.9%(1,190명), 정신건강의학과 6.3%(765명), 비뇨기과 3.0%, 피부과 2.4%, 안과 2.4%, 신경외과 1.7%, 한의과 1.4% 순으로 집계됐다. 이비인후과(0.6%)와 외과(0.6%), 물리치료(0.5%), 신경과(0.1%)는 1% 미만이었다. 내과의 경우 주간 진료 외에 야간 진료(4.4%)와 감기약 투약 환자를 합하면 약 60%에 달해 비중이 가장 높았다. 김영주 간호팀장은 “마이너 진료과 중에서는 피부과가 환자 수요에 비해 봉사의 사 선생님이 부족해 모시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피스오브헤븐, 유기농 수제 쿠키 전달

수제 쿠기 제조업체인 피소오브헤븐의 강정아 대표가 새해를 맞아 진료 환자들에게 전해달라며 수제 쿠기 한 상자를 보내왔다. 강 대표는 자사 카드에 ‘어릴 적부터 방송에서 요셉의원의 활동을 보고

과별	연간 진료횟수	비율	환자수	환자 1인당 반복진료 횟수
내과 (주간)	5937	49.2%	1180	5.48
내과 (야간)	529	4.4%		
감기약	460	3.8%	-	-
정형외과	1190	9.9%	314	3.79
정신의학과	765	6.3%	106	7.2
비뇨기과	367	3.0%	107	3.43
피부과	284	2.4%	135	2.1
안과	278	2.3%	130	2.14
신경외과	201	1.7%	80	2.51
한 의과	171	1.4%	55	3.1
이비인후과	72	0.6%	44	1.64
외과	71	0.6%	45	1.58
물리치료	59	0.5%	26	2.27
신경과	13	0.1%	13	1
영상의학	10	0.08%	9	1.11
치과	1664	13.8%	408	4.08
계	12,071			

2021년도 본원 진료 통계



후원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오다 약소하지만 유기농 밀로 만든, 첨가물 없는 수제 쿠키를 만들어 보내드린다"며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주시는 행보에 늘 감사드립니다"고 적었다.

아이쿱 생협, 종이팩 해양심층수 후원



플라스틱(PE) 물병 대신 종이팩에 생수를 담아 공급하고 있는 아이쿱 생협(자연드림·대표 김정희 회장)은 지난 1월 25일 동해 해양심층수로 취수한 '기쁜물' 생수 360팩(500ml 20상자)을 본원에 전달했다. 아이쿱 생협은 앞으로 1년 간 매달 '칼슘 저감 기쁜물' 생수 360개와 해양심층수에서 추출한 소금도 함께 후원할 예정이다. 아이쿱 생수 임주형 팀장은 "강원도 고성 해저 600m에서 취수한 기쁜물은 오염이 덜 되고 미네랄이 풍부하다 종이팩에 담기 때

+ 2021년 수지보고

2021년. 1월 1일 ~ 12월 31일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전기이월금	82,659	인 건 비	646,017
후원금 수입 (정기)	2,188,417	업무추진비	24,711
후원금 수입 (비정기)	74,2200	운 영 비	232,601
후원금 수입 (지정)	489,471	시 설 비	53,112
후원금 수입 (현물)	156,198	자선진료사업	287,926
잡이익	3,969	환자돌봄 사업	217,789
		홍보행사 사업	15,251
		목동의집 사업	58,912
		요셉의집 사업	29,021
		해외의료 적립금	165,000
		시설 적립금	1,188,428
		차기이월금	46,166
합 계	2,994,939	합 계	2,994,934

문에 미세플라스틱도 불검출되는 건강 생수"라며, "고혈압을 앓거나 음주를 하는 분들이 많은 요셉의원 환자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고자 생수 후원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쁜물 생수는 '저스트', '칼슘 저감 기쁜물', '마그네슘 강화 기쁜물' 등 세 종류로, 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통해 330ml 한 팩당 종류에 따라 350~520 원에 공급된다.

새사제들, 본원 직원과 봉사자들에게 안수

지난해 12월 8일 사제서품을 받은 대전



교구 유현재 마르티노 신부가 2월 7일 본원을 찾아 이임하는 조해봉 원장신부와 함께 이임 미사를 공동 집전한 뒤, 본원 직원과 봉사자들에게 안수를 베풀었다. 유 신부는 신학교 재학 당시인 2020년 2월부터 10개월 동안 본원에서 현장체험을 한 바 있다. 이에 앞서 1월 24일에는 신학생 때 본원에서 한 달 동안 현장실습을 했던 위대협(드메트리우스), 김성현(마르코), 최재승(요셉) 새 신부가 사제서품을 받고 본원에서 첫 미사를 올린 뒤 안수를 베풀었다.

봉사자 코너



석성호 치기공 봉사자

“정성 들여 제작한 틀니, 환자의 기쁨 되기를”



“내 순서인데 다른 환자가 먼저 한다고 크게 화를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금하고 마음의 여유가 없다고 할까요. 선우 선생님은 이런 분들은 환자이니 잘 달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다수 환자들은 순진하고 착한 편입니다.”

석성호 치기공 봉사자는 지난 20여년 동안 치과 봉사의를 도와 환자들의 틀니를 직접 만들어주고 수리도 해주는 봉사를 해왔다.

사회의 소외된 그늘에 사는 노숙인이나 쪽방촌 사람들은 가슴에 쌓인 울분을 술로 풀거나,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보니 치아가 망가지는 경우가 많다. 본원의 여러 진료과 중에서도 치과에 환자가 많이 몰리는 이유 중 하나다. 이들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틀니. 그러나 시중에서 틀니를 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어 가난한 이들이 선뜻 시술받기가 쉽지 않다. 본원에서는 이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거쳐 무료로 틀니를 장착해주고 있다.

석성호 봉사자(64·치기공사)는 지난 1997년부터 20여년 동안 본원에서 치과 봉사의를 도와 환자들의 틀니를 직접 만들어주고, 수리도 하는 봉사를 해오고 있다. 본원의 치기공 봉사자 세 명 가운데 경력이 가장 오래된 연장자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에 봉사를 나온다. 치기공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1982년부터 이 일을 해 왔으니 올해로 40년째에 들어선 이 분야의 장인이다.

치과 보철물 제작 경력 40년의 베테랑



— 치과 기공사는 주로 어떤 일을 하나요?

“치과 보철 치료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한다고 할까요. 치과 의사의 지시에 따라 틀니나 손상된 치아를 덧씌

우는 치관(크라운), 빠진 이나 발치한 이 대신 작은 틀니인 브릿지 등을 만들고 수리하는 일을 합니다.”

석 봉사자는 그동안 치과에서 일하기도 하고 치기공소에 취업도 했다가 한 때는 본인이 직접 업체를 운영하기도 했다. 현재는 한 치기공소에 작업실을 두고 본원에서 소요되는 일부 틀니 등 보철물들을 만들어주고 있다.



— 본원 치과에서 오랫동안 봉사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금요일 오후에 무료봉사를 나오시는 김정식 치과선생님의 권유가 큰 힘이 됐습니다. 일반 치과에는 치기공사가 거의 없고, 치과 의사나 치위생사가 환자 보철물의 본을 떠서 기공소에 전달합니다. 그런데 요셉의원은 치과 봉사의 선생님이 여러 환자를 진료하느라 바쁘기 때문에 치기공사가 대신 본을 뜨거나 수리를 하는 등 도와드려야 접수 환자를 모두 진료할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 몇 년 간은 그런 봉사를 했었는데, 틀니를 제작해 주는 기공소들이 요셉의원에서 주는 틀니 값으로는 인건비도 제대로 안 나온다며 기피하는 거예요. 그러자 김정식 선생님이 그러면 당신이 기공소를 차리든지 해서 공급해 보면 어떻겠느냐고 하

서서 이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본원에서 봉사하는 치기공사들이 납품하는 가격은 대체로 시중가의 3분의 2 정도로 원가에 가깝게 싼 편이다. 물론 이 비용은 전액 후원자들의 정성스런 기부금으로 본원에서 충당하고 있다.

본원 틀니 치료, 비교적 정확하고 진행 빠른 편

틀니를 장착하기 위해서는 먼저 환자의 구강 내 치아 등을 미리 정리한 뒤 시간 여유를 두고 잇몸과 치아 상태를 확인해서 본을 떠야 한다. 치과 의사가 전체적인 틀니 형태를 구상한 뒤 치기공사와 환자 상태를 직접 살펴보면서 세부 사항을 협의해 결정한다. 이 때문에 본원에서 맞추는 틀니는 비교적 정확하고 진행 속도도 빠른 편이다.

“전체 틀니인지 부분 틀니인지가 결정된 뒤 인상재로 본을 떠서 치과 기공소로 가져가 기본적인 치아 형태를 만든 다음 치과로 가져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를 환자에게 끼워보고 높이나 형태 등을 주문하지요. 거기에 맞춰 기공소에 가서 다시 왁스에 인공치아를 심어 1차 틀니를 완성하고 환자가 잘 맞으면 왁스를 아크릴릭 레진으로 교체해 틀니를 완성하게 됩니다.”

처음 내원해서 틀니를 완전 장착하기까지는 대체로 2~3개월이 걸린다. 만들어진 틀니를 환자에게 끼워보면 환자가 어색해하거나 불편하게 느끼기도 하지만 80% 정도는 무리없이 잘 맞는다고 한다. 석 봉사자는 “간혹 열 명에 한두 명 정도 잘 맞지 않는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상황을 보고 틀니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같거나 깎아달라고 요청하면 그대로 교정을 한다”고 말했다.

물론 틀니도 환자의 구강 상태에 따라 쉽게 장착하거나, 반대로 다소의 어려움이 따르기도 한다. 대표적인 경우가 치아를 뽑고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아 잇몸이 덜 아물었을 때다. 많은 환자들이 틀니를 빨리 장착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본원 치과에서도 가능한 한 서두르는 편이나 잇몸이 제대로 아물

지 않았을 때는 통증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

다른 난점은 본원 치과 환자의 상당 수가 아래 잇몸 뼈가 약하거나 거의 없어 틀니를 장착한 뒤 이 틀니가 잘 빠지기도 한다는 점이다. 이런 경우는 상태를 봐서 의사의 지시로 다시 조정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런 틀니는 얼마나 오래 쓸 수 있을까? 수명은 쓰는 사람에 따라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까지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다.

“원래 있던 치아가 빠지거나 하면 틀니로 공간을 메우는 수리를 해서 더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치아가 너무 닳았거나 잇몸이 변형돼 틀니가 헐겁게 되면 치과 선생님들이 보시고 교체 여부를 판단하게 되지요.”

순서 조금 바뀌면 불같이 화를 내는 환자도



— 지난 20여 년 동안 여러 분류의 환자들을 만나다 보면 기억에 남는 일도 있으시지요?

“예전에 선우 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 오는 환자분들 가운데는 열등감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어요. 진료는 당연히 순서대로 진행되는데 어찌다 치아 촬영이나 발치 등을 하다 보면 순서가 약간 바뀔 때가 있지요. 그때 내 순서인데 다른 환자가 먼저 한다고 크게 화를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급하고 마음의 여유가 없다고 할까요. 선우 선생님은 이런 분들은 환자이니 잘 달래야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대다수 환자들은 순진하고 착한 편입니다.”

20여 년 전 치과에 재직하며 처음 본원에 봉사를 나왔을 때



석 봉사자는, 틀니는 바닥에 떨어지면 깨지니 쉬우니 세척할 때는 밑에 부드러운 플라스틱 대야 같은 것을 받쳐놓는 것이 좋고, 닦을 때 치약은 절대 쓰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는 치과 진료실에서도 ‘묘한’ 냄새가 났다.

“아무래도 목욕을 자주 하지 않거나 옷을 잘 가라입지 않는 환자들이 올 때는 막말로 숨이 확 막혔지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현관에서 냄새가 심하게 나는 분들은 목욕을 시켜서 올려보내고 옷도 새로 가라입히곤 하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목욕실은 운영하지 않고 있으나 환자들의 위생관념도 훨씬 나아졌다고 한다.

“틀니 닦을 때 치약은 금물”



— 틀니 제작 전문가로서 틀니 관리를 위해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주시지요.

“먼저 틀니를 씻을 때 밑에 탄력이 있거나 부드러운 플라스틱 대야 같은 걸 받쳐놓고 세척하는 게 좋습니다. 틀니 윗부분은 도자기 등을 만드는 것과 비슷한 재질이어서 딱딱한 바닥에 떨어지면 깨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닦을 때 치약은 금물입니다. 마모제가 들어있어 닦기가 쉬워요. 흔히 쓰는 주방세제를 사용하면 됩니다.”

석 봉사자는 본원 치과에서 봉사하면서 특별히 ‘봉사’라고

생각해 본 적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환자들의 부서진 틀니를 즉석에서 수리해 쓸 수 있게 해주면 환자들이 반색을 하며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고 보람을 느낀다는 것.

“요즘에는 틀니를 고장 내는 분들이 드문데, 예전에는 많았어요. 실수로 떨어뜨려서 깨진 틀니 윗부분을 본드로 붙여 쓰다 다시 떨어져서 가져온 분들에게 깔끔하게 접합 수리를 해드리면 무척 고마워하죠”

때로는 담배를 많이 피워서 틀니에 니코틴이 새까맣게 달라붙은 채 오는 이도 있다. 원래는 닦아주지 않지만, 간혹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에게는 ‘서비스’를 베풀기도 한다.

석 봉사자는, 한창 때는 손상된 치아를 포셀린이나 지르코니아 등으로 씌우는 미세 치관 작업도 자주 했으나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정확도가 떨어져 덩치가 큰 틀니 작업을 주로 한다고 말했다. 본원 치과 환자 가운데 치관(크라운) 환자는 20% 내외, 틀니 환자는 70~80% 정도여서 앞으로도 여전히 본원에서 ‘봉사할 기회’는 많은 편이다.

그는 “개인적으로 특별한 계획이 없어서 한동안은 요셉의원에서 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고, “제 나름대로 정성 들여 만든 틀니를 끼고 활짝 웃는 환자들을 보면 보람과 기쁨을 느낀다”며 미소지었다. +

환자스토리



집 안의 예수상 보며 늘 큰 절 하는 박태선 씨

“건달로 반 평생 살다 이제 정신 좀 차리려고요”



딱히 특별한 직업도 없이 동네에서 술 먹고 힘깨나 쓰다 교도소도 몇 차례 다녀왔던 박태선 씨(62)는 요즈음 방에서 들고 날 때마다 벽에 걸어둔 예수상을 보며 큰 절을 한다.

나이가 들다 보니 젊어서 강한 척하고 주먹을 휘두르던 것이 이제는 다 부질없게 생각되고, 그동안의 잘못 때문에 ‘지옥에 갈까 두려워’ 마음 씩씩이를 고쳐잡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이다.

“방에 있는 성경책을 네 번이나 독파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교회 간다고 하면 전에는 콧방귀나 끼고 교회에서 밥을 주냐, 떡을 주냐 비아냥대던 일이 후회됩니다. 병들고 나이 드니까 건강할 때의 교만함이 수그러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박 씨는 시간이 날 때마다 무릎 꿇고 열심히 기도를 한다고 했다. 젊은 시절에 지었던 죄까지 눈물 흘리며 고백한다는 것. 그에게 이런 회개의 계기가 찾아온 것은 몇 가지 질병으로 인한 고통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초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속이 더부



룩하고 구토 증세가 생기더니 밥을 못 먹겠는 거예요. 그래서 닻새를 굶었죠. 병원에 가보니 역류성 위염이라고 해서 3개월 동안 약 먹고 증세가 좀 나아졌습니다.”

박 씨는 혈압도 높아 현재 본원에서 혈압약과 위염약을 처방받고 있다. 또 초음파검사 결과 담낭에 용종 세 개가 있어 수술을 기다리는 중이다. 시골 농촌에서 태어난 그는 중학교 졸업 후 다방과 술집의 웨이터 등을 하다 형을 따라 기계공장에서 일도 하고, 한 때 건설현장에서 질통을 짊어지기도 했다.

“80년 대 초반부터 부천 자유시장 뒷골목에서 도박하는 ‘선배’들을 만나 망을 봐주고 용돈을 얻어쓰면서 가끔 폭

력을 쓰게 됐지요. 그래서 경찰서 요주의 인물로 오르기도 했고요. 원래 복싱 선수 되는 것이 꿈이었으나 형편이 안 돼 제대로 배우지를 못 했어요.”

술집에서 후배들과 술을 먹다 누가 쳐다보면 ‘뭘 보느냐’며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다는 그는 그러나 어린 시절 ‘눈물 젖은 빵을 먹던 시절이 생각나’ 가출 청소년들을 데려다 집에서 한 달씩 보살핀 일도 있었다.

지난해 3월 말 출소한 그는 “이제 남은 인생 덩으로 생각하고 살겠다”며, “예수님의 말씀을 늘 새기면서 제가 도움을 받은 만큼 남을 도울 수 있는 일에도 나서보겠다”고 다짐했다. +

후원의 손길

노후에 저축한 돈 3000만 원 전달한 허영희 후원자

“30년 전의 다짐을 이제야 실천합니다”

성탄절을 이틀 앞둔 지난 해 12월 23일 80세 가까운 노부부가 본원을 방문했다. 다리가 불편한 부인 허영희(78·아네스) 씨는 “선우 경식 선생님에 관한 책을 감명 깊게 읽고 요셉의원에 가봐야지, 가봐야지 한 것이 벌써 30년이 흘렀다”고 말하고, “더 늦지 않게 후원금을 전달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감회를 밝혔다. 군포 산본에서 왔다는 이들 부부는 후원 담당자에게 3000만 원이 적힌 수표 한 장을 선뜻 내밀었다.

“제가 건강이 좋지 않아 약을 여러 가지 먹고 있어요. 그동안 선우 선생님의 대한 생각이 마음에 각인이 돼 있어서 우리 영감에게 내가 요셉의원 찾아가지 못하고 죽으면 내 대신 꼭 가보라고까지 말을 했었지요.”

허 후원자는 “원장신부님이 병 들고 가난한 이들을 돕는 요셉의원을 훌륭하게 이끌고 계실테지만, 돌아가신 선우 원장님의 뜻을 잘 이어가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노후 자금을 무리해서 후원하시는 게 아니냐고 묻자 허 후원자는 “돌아가신 친정 어머니가 힘들게 사업을 하시면서 안양의 모 성당 건물도 기증하셨고, 성당 교우들에게 도움을 청하러 오시는 신부님들이 계시면 그냥 빈 손으로 가시게 하는 법이 없었다”며,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도

여력이 있는 대로 현장을 찾아보고 어머니의 실천을 본받으려 노력했다”고 전했다.

허 후원자는 “수십 년을 버려다 이제야 찾아왔는데, 미련 하나마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에게 작은 지렛대 역할을 한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밝혔다. +

치료 제대로 못 받은 아버지 생각에 후원 결심한 최해순 후원자

“생활 안정되면 후원금 올려야죠”

“돈이 없어 제대로 치료 못 받고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에, 그런 분들이 다시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우선 작은 금액이라도 정기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에 사는 최해순 후원자(41)는 지압 아르바이트로 어머니와 남동생 등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처녀 가장’임에도 한 TV프로그램을 통해 본원의 활동을 알고는 지난 1월부터 한 달에 5000원씩 정기 후원을 신청했다. 그는 시아가 제한된 5급 시각장애인으로 늦깎이로 대학에서 특수교육을 공부한 뒤 현재 오전에는 일을 하고, 오후에 행정 공무원 시험공부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 후원자는 “아버지가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친척들에게 학대 받고 자라신 때문인지 성인이 돼서 그런 울분을 술로 푸셨던 것 같다”며, “알코올성 치매가 와서 어머니가 집에서 보살피시다 허리를 다쳐 요양병원으로 모셨는데, 치료비가 비싸 다시 요양원으로 옮기셨다 흡인성 폐렴으로



돌아가셨다”고 밝혔다. 최 후원자는 “시험에 합격하고 생활이 안정되면 후원 금액을 더 늘리겠다”고 말했다. +

고인 된 동생 뜻 기려 정기후원 신청한 나승철 후원자

“하느님 사랑한 동생 유산, 하느님 사업에 내놓습니다”

“독신으로 살다 지난해 6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여동생의 뜻을 기려 형제들이 고인의 유산을 하느님의 뜻에 맞는 곳에 쓰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난 2월 초순 본원 민영진 상근봉사자를 찾아 이같은 후원의 뜻을 밝힌 나승철 후원자는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한 달에 100만~150만원 씩 1~2년 정도 정기후원을 하겠다”고 전했다. 예전에 중국 청도에서 민 봉사자와 함께 신앙

생활을 하며 인연을 맺은 나 후원자는 실제로 2월 15일 후원금 100만 원을 입금했다.

유산을 남긴 고 나승자 씨는 교직에서 정년 퇴직 후 은퇴 생활을 하다 병을 얻은 뒤 그만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 씨 사망 후 형제 셋은 평소 하느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고인의 뜻을 기려 남긴 유산을 현금화한 뒤 이를 고통받거나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돕는 곳에 정기적으로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나 후원자는 “미국에 사는 여동생은 지난 십수년 동안 탈북 청소년들을 연간 10여 명씩 미국으로 데려가 교육을 시키고 있고, 캐나다에 사는 남동생은 교회 장로로 지역사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어 동생 유산 기부에 모두 흔쾌히 동의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기부할 곳이 몇 군데 되기 때문에 미래를 장담할 수는 없으나, 여건이 닿는 데까지 요셉의원을 돕겠다”고 밝혔다. +



요셉의원 | 후원 및 기증현황

+ 후원금을 처음 보내주신 분(2021년 12월~2022년 1월)

● BAN SUNG BEA ● Chang Sun Park ● Hansoyoung ● KIM JAEIK ● Lee Michael ● Lee Young ● 강경란 ● 강경진 ● 강기선 ● 강동희 ● 강명란 ● 강미선 ● 강미애 ● 강미영 ● 강민서 ● 강민영 ● 강병수 ● 강병주 ● 강보연 ● 강봉기 ● 강설훈 ● 강석호 ● 강애란 ● 강영민 ● 강영순 ● 강영주 ● 강예리 ● 강은숙 ● 강은아 ● 강이슬 ● 강임순 ● 강정자 ● 강정자 ● 강준호 ● 강지민 ● 강현진 ● 강 홍 ● 고나영 ● 고덕호 ● 고민지 ● 고박병식 ● 고보경 ● 고상일 ● 고수경 ● 고수경 ● 고승식 ● 고은별 ● 고재호 ● 고점자 ● 고정민 ● 고창범 ● 고현숙 ● 고현순 ● 고혜성 ● 공영운 ● 공윤지 ● 광병원 ● 광수연 ● 광신애 ● 광유정 ● 구경모 ● 구나영 ● 구나윤 ● 구명희 ● 구민정 ● 구분혁 ● 구성재 ● 구소연 ● 구승석 ● 구애덕 ● 구현모 ● 구혜경 ● 국정훈 ● 권기영 ● 권나현 ● 권명희 ● 권미숙 ● 권미희 ● 권민정 ● 권병옥 ● 권석훈 ● 권수민 ● 권수현 ● 권순성 ● 권영진 ● 권오성 ● 권오욱 ● 권용주 ● 권창원 ● 권혁례 ● 권혜민 ● 금아름 ● 금영정 ● 금창원 ● 기지현 ● 김가민 ● 김가을 ● 김경숙 ● 김경연 ● 김경연 ● 김경옥 ● 김경주 ● 김경준 ● 김경표 ● 김경호 ● 김경환 ● 김경희 ● 김광선 ● 김광섭 ● 김광철 ● 김광훈 ● 김규림 ● 김규식 ● 김근영 ● 김기남 ● 김기숙 ● 김기준 ● 김기철 ● 김나경 ● 김낙준 ● 김난옥 ● 김난희 ● 김남홍 ● 김다영 ● 김대봉 ● 김대자 ● 김대진 ● 김덕례 ● 김동열 ● 김동욱 ● 김동익 ● 김두남 ● 김두영 ● 김두희 ● 김리하 ● 김명선 ● 김명숙 ● 김명자 ● 김명희 ● 김문경 ● 김 미 ● 김미랑 ● 김미리 ● 김미선(총통중기) ● 김미숙 ● 김미영 ● 김미자 ● 김미정 ● 김미화 ● 김민경 ● 김민수 ● 김민정 ● 김민주 ● 김민지 ● 김민진 ● 김민하 ● 김민희 ● 김범민 ● 김 별 ● 김복현 ● 김빛나 ● 김사랑 ● 김삼주 ● 김상국 ● 김상은 ● 김상준 ● 김상준 ● 김상현 ● 김상희 ● 김새풍 ● 김서경 ● 김서인 ● 김선경 ● 김선두 ● 김선영 ● 김선옥 ● 김선호 ● 김선화 ● 김선희 ● 김성업 ● 김성은 ● 김성진 ● 김성혜 ● 김세라 ● 김세철 ● 김소연 ● 김소영 ● 김소현 ● 김수경 ● 김수림 ● 김수민 ● 김수인 ● 김수자 ● 김수지 ● 김수현 ● 김순애 ● 김승남 ● 김승영 ● 김승환 ● 김시을 ● 김신범 ● 김신향 ● 김애경 ● 김애련 ● 김애자 ● 김양자 ● 김연경 ● 김연숙 ● 김연욱 ● 김연주 ● 김영덕 ● 김영숙 ● 김영숙 ● 김영순 ● 김영식 ● 김영준 ● 김영협 ● 김영희 ● 김예은 ● 김예지 ● 김예찬 ● 김옥자 ● 김옥희 ● 김 완 ● 김외순 ● 김요섭 ● 김요셉 ● 김용식 ● 김용운 ● 김용해 ● 김용희 ● 김용용 ● 김유건 ● 김유경 ● 김유나 ● 김유석 ● 김유정 ● 김유진 ● 김윤아 ● 김윤영 ● 김윤호 ● 김은경 ● 김은빈 ● 김은성 ● 김은숙 ● 김은예 ● 김은옥 ● 김은주 ● 김은진 ● 김은하 ● 김은혜 ● 김은호 ● 김은홍 ● 김은희 ● 김은희 ● 김이경 ● 김인복 ● 김인식 ● 김장우





● 김재영(동일케미칼) ● 김재용 ● 김재윤 ● 김재일 ● 김재중 ● 김재철 ● 김정금 ● 김정래 ● 김정린 ● 김정미 ● 김정민
 ● 김정빈 ● 김정수 ● 김정숙 ● 김정옥 ● 김정철 ● 김정현 ● 김정화 ● 김종신 ● 김종우 ● 김종하 ● 김종화 ● 김준호 ● 김준휘
 ● 김지민 ● 김지선 ● 김지연아그리피나 ● 김지영 ● 김지현 ● 김지형 ● 김지홍 ● 김진경 ● 김진숙 ● 김진일 ● 김진형 ● 김창구
 ● 김창희 ● 김채성 ● 김채여 ● 김춘례 ● 김치홍 ● 김태길 ● 김태호 ● 김태훈 ● 김평주 ● 김한나 ● 김해주 ● 김향순 ● 김현우 ● 김현태
 ● 김 현 ● 김현숙 ● 김현식 ● 김현용 ● 김현우 ● 김현정 ● 김현중 ● 김현주 ● 김현지 ● 김현진 ● 김형규 ● 김혜경 ● 김혜경 ● 김혜민
 ● 김혜영 ● 김혜인 ● 김혜주 ● 김혜진 ● 김호세 ● 김호진 ● 김효성 ● 김효원 ● 김효진 ● 김흥래 ● 김희경세실리아 ● 김희수 ● 김희원
 ● 김희진 ● 나신혜 ● 나윤오 ● 나 인 ● 나지연 ● 나현주 ● 나형주 ● 나호성 ● 남가현 ● 남건우 ● 남궁호 ● 남미래 ● 남영애 ● 남영탁
 ● 남윤숙 ● 남창학 ● 남희자 ● 노미란 ● 노성민 ● 노수윤 ● 노연주 ● 노은석 ● 노정아 ● 노진현 ● 노현진 ● 노혜영 ● 노화영 ● 두진숙
 ● 루시아 ● 류대현 ● 류민경 ● 류승연 ● 류제광 ● 류혜민 ● 류혜옥 ● 류희수소피아 ● 마리아 ● 마상은 ● 마주연 ● 문미선 ● 문미화
 ● 문병섭 ● 문영범 ● 문태식 ● 문혁진 ● 문혜령 ● 민경복 ● 민나하나 ● 민선근 ● 민선양 ● 민평근 ● 민혜경 ● 박경순 ● 박경우 ● 박경웅
 ● 박계정 ● 박 광 ● 박근일 ● 박길희 ● 박노경 ● 박다예 ● 박다은 ● 박다향 ● 박동연 ● 박명자 ● 박명주 ● 박문주 ● 박미경 ● 박미나
 ● 박미리 ● 박미리 ● 박미소 ● 박미숙 ● 박미주 ● 박병준 ● 박봉화 ● 박서영 ● 박선영 ● 박성규 ● 박성원 ● 박성준 ● 박성진 ● 박성희
 ● 박소연 ● 박소영 ● 박소윤 ● 박수경 ● 박수민 ● 박수희 ● 박순용 ● 박순임 ● 박순재 ● 박슬기 ● 박승우 ● 박승욱 ● 박신오 ● 박신행
 ● 박양례 ● 박연실 ● 박연우 ● 박영룡 ● 박영환 ● 박영희 ● 박요한 ● 박윤경 ● 박은숙 ● 박은정 ● 박은진 ● 박은희 ● 박이슬 ● 박인규
 ● 박인하 ● 박인호 ● 박재성 ● 박재성 ● 박재중 ● 박정두 ● 박정미 ● 박정배 ● 박정아 ● 박정이 ● 박정일 ● 박정재 ● 박종기 ● 박종순
 ● 박주연 ● 박지연 ● 박지원 ● 박지천 ● 박진경 ● 박찬영 ● 박채경 ● 박채윤 ● 박대봉 ● 박한숙 ● 박향선 ● 박현경 ● 박현숙 ● 박현옥
 ● 박현지 ● 박형동 ● 박혜련 ● 박혜령 ● 박호석 ● 박희순 ● 박희영 ● 박희정 ● 방경자 ● 방승경 ● 방윤재 ● 방은주 ● 배명량 ● 배문호
 ● 배상규 ● 배수빈 ● 배신희 ● 배재진 ● 배종진 ● 배주희 ● 배현순 ● 배현진 ● 배현희 ● 백남정 ● 백다영 ● 백명현 ● 백성민 ● 백성호
 ● 백소연 ● 백송희 ● 백승빈 ● 백승훈 ● 백영미 ● 백현희 ● 베스테이린 ● 변관석 ● 변성혁 부 회영 ● 서강덕 ● 서경미 ● 서경애
 ● 서귀현 ● 서다영막달레나 ● 서동삼 ● 서명순 ● 서미경 ● 서병구 ● 서보근 ● 서상력 ● 서상일 ● 서신강 ● 서원희 ● 서유경 ● 서윤경
 ● 서윤하 ● 서정철안드레아 ● 서종규 ● 서준선 ● 서준영안드레아 ● 서지연 ● 서창우 ● 서현미 ● 선우지혜 ● 선우진 ● 선필훈 ● 설성현
 ● 성경은 ● 성기석 ● 성명교 ● 성민구 ● 성봉조 ● 성유나 ● 성윤모 ● 성일경 ● 성일숙 ● 성정현 ● 성효진 ● 소은자 ● 손동욱 ● 손보경
 ● 손승연 ● 손은진 ● 손은채 ● 손인영 ● 손재면 ● 손현창 ● 송구현 ● 송남순 ● 송문자 ● 송미라 ● 송민서 ● 송민호 ● 송병필실비아
 ● 송선옥 ● 송수빈 ● 송영선 ● 송예진팬들 ● 송유경 ● 송유리 ● 송은주 ● 송인후 ● 송정수 ● 송정숙 ● 송정원 ● 송주영 ● 송지혜
 ● 송하정 ● 송현중 ● 송현주 ● 송현환 ● 송혜림 ● 송홍영 ● 승연하 ● 신가영 ● 신기주 ● 신상민 ● 신소정 ● 신순옥 ● 신승우 ● 신양준
 ● 신 영 ● 신은주 ● 신철우 ● 신한진 ● 신혜수 ● 신혜은 ● 심광보 ● 심상화 ● 심웅비 ● 심혜영 ● 안금화 ● 안대철 ● 안명희 ● 안선영
 ● 안선희 ● 안소연 ● 안소연안나 ● 안수민 ● 안수영 ● 안수현 ● 안승일 ● 안신행 ● 안영순 ● 안영신 ● 안예준 ● 안점희 ● 안정숙
 ● 안종수 ● 안지현 ● 안현정 ● 양미영 ● 양보배 ● 양복순 ● 양서린 ● 양서현 ● 양성윤 ● 양유정 ● 양정원 ● 양지선 ● 양진욱 ● 양훈진
 ● 어윤화 ● 엄경섭 ● 엄미나 ● 엄옥희 ● 엄재용 ● 엄혜경 ● 엄홍렬 ● 염규원 ● 염현정 ● 오경석 ● 오경선 ● 오경숙 ● 오덕근 ● 오미영
 ● 오상용 ● 오성철 ● 오세진 ● 오순옥 ● 오영란 ● 오영문 ● 오영자 ● 오웅진 ● 오유석 ● 오자명 ● 오정순 ● 오정윤 ● 오혁재 ● 오현정
 ● 옥지효 ● 왕계은 ● 우민지 ● 우은주 ● 우정훈 ● 우지혜목사 ● 우 희 ● 원경혜 ● 원동균 ● 원영희 ● 원종수 ● 원지현 ● 유경은
 ● 유경희 ● 유근중 ● 유명상 ● 유보람 ● 유서경 ● 유선희 ● 유성주 ● 유세화 ● 유수민 ● 유수정 ● 유 숙 ● 유시원 ● 유연주 ● 유영란
 ● 유영희 ● 유예은 ● 유우지 ● 유재희 ● 유정희 ● 유주형 ● 육현숙 ● 윤나영 ● 윤대양 ● 윤미경 ● 윤민열 ● 윤복순 ● 윤송환 ● 윤승근
 ● 윤연숙 ● 윤영숙 ● 윤옥희 ● 윤은경 ● 윤은수 ● 윤은정 ● 윤은희 ● 윤인애 ● 윤자경 ● 윤정숙 ● 윤주현 ● 윤지산 ● 윤태호 ● 윤하영
 ● 윤혜수 ● 윤혜영 ● 윤혜은 ● 윤희연 ● 올리안나 ● 올리요셉부부 ● 이가빈 ● 이가희 ● 이갑춘 ● 이강진 ● 이강희 ● 이건호 ● 이경미
 ● 이경선 ● 이경순 ● 이경재 ● 이경희 ● 이광식 ● 이광호 ● 이구남 ● 이권비 ● 이규빈 ● 이금신 ● 이금진 ● 이기창 ● 이나래 ● 이나연
 ● 이나영 ● 이나현 ● 이남경 ● 이다설 ● 이다솔 ● 이다솜 ● 이다송 ● 이동숙 ● 이동주 ● 이동진 ● 이동호 ● 이동훈 ● 이동희 ● 이매실
 ● 이명주 ● 이명진 ● 이미라 ● 이미란 ● 이미령 ● 이미자 ● 이미정 ● 이미향 ● 이미현 ● 이민기 ● 이민선 ● 이민수 ● 이민희 ● 이보연
 ● 이복동 ● 이복희 ● 이봉만 ● 이상구 ● 이상수 ● 이상윤 ● 이상지 ● 이상화 ● 이서원 ● 이선정 ● 이성신 ● 이성윤 ● 이성진 ● 이성희
 ● 이소민 ● 이소희 ● 이솔잎 ● 이수미 ● 이수영 ● 이수윤 ● 이수진 ● 이순례 ● 이순이 ● 이승환 ● 이승후 ● 이승희 ● 이애연 ● 이연옥
 ● 이연화 ● 이영미 ● 이영민 ● 이영석 ● 이영순 ● 이영은 ● 이영훈 ● 이예림 ● 이완숙 ● 이용배 ● 이용분 ● 이우진 ● 이우희 ● 이운진
 ● 이원무 ● 이원삼 ● 이유미 ● 이윤숙 ● 이윤점 ● 이윤주 ● 이은경 ● 이은서 ● 이은정 ● 이은주 ● 이은혜 ● 이재남 ● 이재은 ● 이점화
 ● 이정길 ● 이정미 ● 이정연 ● 이정영 ● 이정옥 ● 이정주 ● 이정화 ● 이정훈 ● 이정희 ● 이종성 ● 이종웅 ● 이종화 ● 이주경 ● 이주연

●이주영 ●이주은 ●이준석 ●이준호 ●이준환 ●이준희 ●이지민 ●이지연 ●이지현 ●이지훈 ●이지희 ●이진경 ●이진솔
●이진수 ●이찬양 ●이찬주 ●이창도 ●이창용 ●이창재 ●이창화 ●이철희 ●이춘옥 ●이태희 ●이하열 ●이한세 ●이해원
●이해정 ●이현덕 ●이현숙 ●이현숙 ●이현실 ●이현정 ●이현주 ●이현지 ●이현진 ●이현호 ●이형석 ●이형순 ●이혜란
●이혜미 ●이혜민 ●이혜정 ●이혜진 ●이홍직 ●이화용 ●이화윤 ●이효영 ●이효정 ●인경은 ●인서희 ●임보경 ●임선미 ●임성민
●임성신 ●임수진 ●임수현 ●임승권 ●임연옥 ●임영민 ●임일해 ●임재영 ●임정하 ●임정혜 ●임지연 ●임현숙 ●임현주 ●임현철
●장경숙 ●장기숙 ●장기훈 ●장성한 ●장세현 ●장수민 ●장수원 ●장슬기 ●장영숙 ●장영호 ●장원순마리아 ●장유진 ●장은경
●장은혜 ●장이준 ●장재훈 ●장정문 ●장정현 ●장지연 ●장지혜 ●장춘화 ●장판례 ●장현주 ●장효진 ●전다은 ●전동찬 ●전미옥
●전병호 ●전삼용 ●전선민 ●전세미 ●전수희 ●전영관 ●전영운 ●전 우 ●전윤주 ●전은진 ●전은채 ●전은희 ●전인성 ●전준모
●전형진 ●전희자 ●정강자 ●정경화 ●정과정 ●정광교 ●정광운 ●정다운 ●정다해 ●정다혜 ●정명남 ●정명옥 ●정명준 ●정미경
●정미옥 ●정미화 ●정민희 ●정보민 ●정선균 ●정선아 ●정선영 ●정선희 ●정설형 ●정성문 ●정수경 ●정수영 ●정승혜 ●정여진
●정연순 ●정연웅 ●정연정 ●정연희 ●정영인 ●정영호 ●정요성 ●정유경 ●정윤석 ●정윤정 ●정은교 ●정은미 ●정은주 ●정인실
●정일해 ●정재은 ●정재홍 ●정정희 ●정제훈 ●정주화 ●정지영 ●정지우 ●정지윤 ●정진석 ●정진호 ●정창화 ●정춘희 ●정태영
●정하늘 ●정하림 ●정현기 ●정현진 ●정현희 ●정혜선 ●정혜식 ●정혜영 ●정혜원 ●정 화 ●정효연 ●정희승 ●정희정 ●제명희
●조강일 ●조건진 ●조균하 ●조금숙 ●조길림 ●조남준 ●조미라 ●조민경 ●조상옥 ●조성옥 ●조성혜 ●조아라 ●조양숙 ●조예진
●조유성 ●조윤미 ●조윤희 ●조은경 ●조은분 ●조은영 ●조이서 ●조재구 ●조재형 ●조정민 ●조제현 ●조종일 ●조하영 ●조현숙
●조현주 ●조효경 ●조희경 ●조희정 ●주슬기 ●주윤경 ●주현정 ●주희서 ●준혁지우준서 ●쥬데마르카 ●지명순 ●지윤미 ●지행숙
●지희선김태복 ●진수호 ●진영주 ●진윤경 ●진익호 ●진인자 ●진주하 ●진행자 ●차상열 ●차석환 ●차선경 ●차세현 ●차윤석
●차은미 ●차은희 ●채원재 ●채정숙 ●채홍구 ●천영재 ●최경옥 ●최경희 ●최남길 ●최동영 ●최미성 ●최민숙 ●최민정 ●최병서
●최보은 ●최상길 ●최상락 ●최선숙 ●최선심 ●최선영 ●최 슬 ●최수미 ●최순주 ●최순화 ●최승주 ●최연준 ●최연희(안젤라)
●최영경 ●최영은 ●최예국 ●최예린 ●최용민 ●최용호 ●최유미 ●최유진 ●최윤선 ●최윤실 ●최윤영 ●최은미 ●최은순 ●최은영
●최정인 ●최정자 ●최정현 ●최종국 ●최주희 ●최지은 ●최지현 ●최지혜 ●최진이 ●최해선 ●최해순 ●최현철 ●최형우 ●최혜영
●최혜진 ●추명관 ●추성엽 ●추성진 ●추영기 ●추지연 ●크리스수녀 ●큰술 ●편미선 ●편우범 ●하미정 ●하선옥 ●하수미
●하영임율리아나 ●하인혜 ●하진아 ●하혜진 ●한갑문 ●한경아 ●한경은 ●한경하 ●한규산 ●한금순 ●한동훈임마누엘 ●한명주
●한미경 ●한상희 ●한아영 ●한양숙 ●한영숙 ●한요한 ●한유진 ●한은실 ●한은하 ●한재영 ●한정미 ●한주형 ●한창선 ●한태현
●한현영 ●한희정 ●함현민 ●허광순 ●허두연 ●허민정 ●허아네스 ●허아람 ●허은아 ●허정화 ●허찬희 ●허현진 ●허혜영 ●현민주
●현영순 ●현은정 ●홍경희 ●홍서영 ●홍석연 ●홍성용 ●홍세진 ●홍애영 ●홍영기 ●홍우주 ●홍은실 ●홍인혜 ●홍종미 ●홍현승
●홍혜순 ●홍혜정 ●황경희 ●황광현 ●황규환 ●황나연 ●황다정 ●황부용 ●황예지 ●황원백 ●황유리 ●황윤선 ●황은교 ●황인준
●황정선 ●황정숙 ●황정훈 ●황주연 ●황지홍 ●황 진 ●황진희 ●황혜진 ●황호선 ●황희경



+ 후원금을 처음 보내신 단체 (2021년 12월~2022년 1월)

●XGOLF골프연습장 ●가구메종98년 ●가락2동성당 ●기아검단대리점 ●남해석유 ●노아방주교회 ●더원디자인그룹주식회사
●디에스캠 ●명동덮밥 도시락 ●문화공동체하음 ●박원석보험대리점 ●삼성회계법인 ●씨알코리아 ●에프에이비엔프라 ●예수사랑교회
●우성기업 ●월드물산 ●위례성모승천성당초등부주일학교 ●일동제약(주) ●(주)가우리안 ●(주)대건상사 ●(주)성화종합산업개발
●(주)솔라파크에너지 ●주식회사 네오제퍼 ●주식회사 우리오에이 ●주식회사 헤스티아 ●(주)영일패키지 ●착한피부과 ●한국인재개발원
●한국청과(주) ●해피랜드 화성남양점 ●해피액터스

+ 주부식을 보내주신 분 (2021년 12월~2022년 1월)

●ICOOP 자연드림 : 생수 360개, 소금 12kg 20상자 ●권도영 : 쌀 20kg ●금성다이아몬드 : 한라봉 10상자(100kg) ●김경숙 : 두유 1상자
●매일유업(송희영) : 썬업(1), 두유(1) 2상자 ●박기성 : 식품 2상자 ●박진경 : 빵 3상자 ●박진노병원장(보바스기념병원) : 과일(사과,배)
2상자 ●박현기아델라 : 노지황금향 300kg ●박현정 : 떡 1상자 ●블라시오 관구장 수녀 : 감귤 5상자 ●샬레시오신부 : 감귤 1상자
●석교상사 : 햄 1상자 ●신동숙 · 엄기숙 : 사과 1상자 ●안산 빈센트의원 : 쌀 20kg 배 2상자 ●양○애 : 감귤 2박스 ●영등포우체국장 :
사과 5상자, 배 2상자 ●원주가톨릭농민회 : 김치 310kg ●유혜정라파엘라 : 황금향 1상자 ●이랜드재단 : 배 1상자 ●익명 :
초코파이 1상자, 케익 20개, 사과 2상자, 떡국 떡 1상자 ●최고레파 수녀 : 사과 3상자 ●최조영 : 감귤 10상자 ●최종옥 : 감귤 2상자





●피스오브헤븐(마포구) : 과자 1상자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사제일동 : 과일 2상자 ●한희동 : 감귤 3상자 ●혜성유통 : 라면 1상자

+ 의류·신발을 보내주신 분(2021년 12월~2022년 1월)

●강혜원 : 의류(옷, 양말, 모자, 장갑, 담요 등) 2상자 ●강혜진 : 옷 1상자 ●김○수 : 신발 1켤레 ●김건환 : 옷 1상자 ●김나경 : 옷 1상자 ●김명은 : 옷 5상자 ●김시완, 김경식 : 양말 50켤레 ●김효정 : 옷 1상자 ●노동윤 : 옷 1상자 ●가톨릭대사목부신부 : 마스크 900장, 여성용 신발 9켤레, 의류(옷, 팬티, 모자 등) ●돈암동성당 : 옷 1상자 ●박○호 : 옷(1상자), 신발(7켤레), 모자(10개) ●박부신 : 양말 1000켤레 ●박은경 : 옷 1상자 ●서동희 : 코트 1벌 ●서상훈 : 옷 1상자 ●송○달 : 신발 1켤레 ●아비엔도 : 양말 50켤레 ●안은미 : 옷 1상자 ●왕계도 : 양말 30켤레 ●윤영숙 : 옷 1상자 ●이○심 : 옷 1상자 ●이선숙 : 옷, 신발, 저금통 등 1상자 ●이종익 : 옷 1상자 ●익명 : 옷, 양말, 기모내의 1상자 ●임홍연 : 옷 1상자 ●장병기(천지인세무회계) : 옷 1상자 ●정경환 : 옷 1상자 ●정은주 : 옷 1상자 ●제일전기 : 겨울옷 1박스 ●(주)미라콤아이앤씨 이천복 그룹장과 직원 : 옷 등 10상자, 마스크 10상자 ●지이씨엘코리아 : 여성내의 1박스 ●최난영 : 옷 1상자 ●태우산업 : 옷, 양말 2상자 ●해피랜드 화성 남양점 : 옷 32벌 ●허 후원자(구례) : 옷 1상자



+ 의료가·의약품을 보내주신 분(2021년 12월~2022년 1월)

●골든타임헬스케어(이효근 대표) : 의료용품(마스크, 주사침, 라텍스장갑 등) 15상자 ●매화약국 : 레바피론 정 외 3종 ●이기주 : 케펜텍플라스타 100매 ●익명 : 파스 1상자 ●하나제약 : 심콜 정 외 30종, 류마스탑 플라스타 600매



+ 집기·소모품을 보내주신 분(2021년 12월~2022년 1월)

●CR 코리아 : 삼푸 2상자 ●김진철 : 비누, 방향제 4상자 ●이 보나벤 두라(당산동 성당) : 마스크 1000장 ●라이온스클럽 제8지구 : 마스크(2500장), 요리장갑(10000개), 치약(720개), 칫솔(1200개), 신발(200켤레), 가죽 장갑(200개) ●배관랜드 : 마스크 700장 ●영등포우체국 : 달력 2상자, 비누·치약·롤팩 각 1박스 ●이완희·임미진·신동우 : 핫팩·초코파이 등 45팩 ●익명 : 잡화 1상자, 마스크 500장, 지갑(6), 키링(10), 티슈(1), 비누(1), 삼푸(1) 3상자, 손세정제 1상자 ●정희선 : 체온계 50개 ●제니퍼 림(미국) : 생활필수품(치약·치솔 등) 1상자 ●(주)카이정물산 황일청 : 마스크 100장



♥ 의류 후원 안내

본원에 항상 정성어린 후원을 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의류 나눔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어 의류나 이불 등 부피가 큰 물품을 보관할 공간이 크게 부족한 형편입니다. 이에 따라 의류나 이불 등은 2022년 하반기 이후에 후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전화 : 02-2634-1760(통화 가능 시간 평일 오후 1시~8시)

직원 및 봉사자 동정

+ 새로 봉사 나오신 분

- 의사 : 박석준(내과)
김보람(정형외과)
김예지(치과)
하민지(한의학)
- 간호사 : 김소라·서유재
- 치위생사 : 권우영·윤하선
- 일반봉사 : 강윤서·강혜진·고기현
김수빈·김정현·김정훈
남지홍·라연우·박미경
변재원·오지원·이재형
정은미·조성용·주화령
홍순애·황지원



+ 우리 병원에서 나눔한 기관

- 목동의집 ●서울시여성보호센터
- 성가복지노인복지센터 ●안나의 집
- 안산 나르샤 ●안산빈센트의원
- 작은자매 관상선교수녀회
- 카프성모병원 ●토마스의 집



+ 요셉의원 월별 환자 진료수

2021년 12월	894 명
2022년 1월	1,038 명



개원 이후 총 진료환자 수(2022년 1월 말 현재)

716,645 명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국제성경사도직후원회 소식

2021.12~2022.1

이번호부터 국내외에 성경을 보급하는 국제성경사도직후원회(약칭 국성회)의 소식지인 '홀씨'가 요셉의원 소식지와 합본돼 발행됩니다. 그동안 요셉의원 안에 사무실을 두고 운영돼 온 국성회는 올해 안에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소속에서 요셉나눔재단 소속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에 따라 소식지 운영 효율화를 위해 요셉의원 및 필리핀 요셉의원과 함께 국성회 소식도 함께 전할 예정입니다. 후원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편집자 주)

국제성경사도직후원회는 이런 곳이에요!

국제성경사도직후원회(이하 국성회)는 하느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난 때문에 읽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자기 나라의 언어로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성경 보급은 1969년 이문주 프란치스코 신부가 베트남 군종신부로 파견되면서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문주 신부는 전쟁 후에 베트남에 남은 한인 2세들에게 직업교육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베트남의 성직자와 수도자들이 성경 지원을 요청해서 보급을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많은 곳에서 성경 지원을 요청해, 몇 사람의 후원금만으로는 그 요구에 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도적인 후원기구의 필요성을 느껴 2007년 5월, 양재동 성당에서 국제성경사도직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 설립일자 : 2007년 5월 20일(가톨릭사도직단체 승인일자 2008년 2월 28일)

+ 설립목적 : 가난한 국내외의 신자들에게 성경을 지원하여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 지원대상 : 가난한 국내외의 신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요청 동기와, 지원 후 수행할 성경읽기 커리큘럼을 검토한 뒤 지원에 착수합니다.

+ 지원내용 : 각 나라 언어로 된 성경 및 교리교재를 지원합니다. 문맹이 많은 나라에서는 글을 깨우칠 수 있도록 언어학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후원회원 : 728명(2022년 1월 28일 기준)

+ 지원 현황 (2021년 12월 31일 기준)

■ 후원국가 : 총 39개국

– 아시아 : 네팔, 몽골, 미얀마, 베트남, 북한, 중국,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태국, 파키스탄, 한국

– 아프리카 : 남수단, 르완다, 모잠비크, 부룬디, 세네갈,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차드, 카메룬, 케냐, 토고

– 아메리카 :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 공화국, 멕시코,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칠레, 콜롬비아, 쿠바, 파라과이, 페루

– 오세아니아 : 마셜제도, 파푸아뉴기니

■ 전체 성경 지원액 : 약 1,580,000,000원(성경이 아닌 교구와 교육비(문해교육비, 컴퓨터, 프로젝터 등등의 교리공부를 위한 도구) 포함)

■ 전체 성경 지원 권수 : 약 299,500권

■ 전체 교리서, 기도서 지원 : 약 145,000권

이문주 신부와 한정관 신부, 선우경식 원장은 베트남 다낭 교구 초청으로 2005년 10월 21일부터 열흘간 베트남을 방문하고, 베트남 신자·신학생들을 위해 베트남어판 성경과 「영문 성서 매일 묵상집(Daily Gospel)」을 전달하고 돌아왔다. 사진 왼쪽부터 선우경식 원장, 한정관 신부, 다낭 교구 장 파울로 탄유엔빈틴 주교, 이문주 신부, 신학생.



국성회와 요셉의원의 관계

이문주 신부와 고(故) 선우경식 전 요셉의원 원장의 인연은 이문주 신부가 성모병원 원목신부로 근무했던 무렵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선우경식 원장은 요셉의원을 시작하면서 이문주 신부에게 지도신부를 맡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선우 원장은 평소부터 해외 의료사업(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 북한 등)에 관심이 많았고,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는 환자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며 그들의 자립을 위하여 최선의 도움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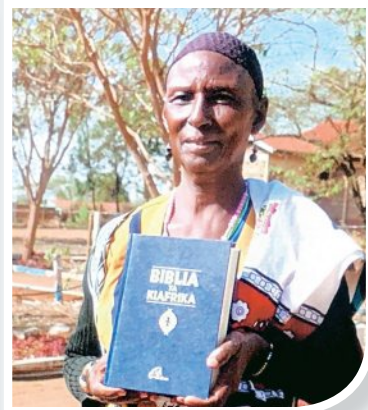
수단 차림의 고 선우경식 원장. 2007년 1월 베트남 후에 신학교 정원에서

2008년 4월 선우 원장이 지병으로 갑자기 선종하였습니다. 선우 원장은 임종 전 이문주 신부로부터 병자 성사를 받은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부님, 저는 그들에게 빵을 주었는데
신부님은 말씀을 전하시니
이는 돌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신부님께서 이 일을 함께 해주십시오.”

이문주 신부는 선우 원장의 유지를 이어가기 위해 요셉의원 병원장 겸 담당 신부의 소임에 순명하였습니다. 요셉의원에서는 국성회를 위해 병원 내에 방을 하나 내주었고, 국성회 사무실은 현재까지 요셉의원과 한 지붕 아래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요셉의원이 요셉나눔재단법인으로서 정식으로 새 출발할 때, 국성회 또한 요셉나눔재단 소속이 될 것입니다. 요셉나눔재단의 새로운 식구로서 국성회를 따뜻하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성회는 케냐의 빈곤 지역인 마르사빗 교구와 마라랄 교구, 이시울로 교구 교리교사 310명을 위해 성경 310부와 교리서 310부, 아프리카 특화 교리서 310세트, 세례성사 DVD 310세트 등 모두 11,750달러어치를 비롯해, 영상제작용 설비비 379만원을 지원했다.

소임을 마치며

“ 후원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온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활동들은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기도에 힘입은 것이며,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신 주님의 자비와 놀라운 섭리입니다.



이문주

전 국성회 지도신부

존경하는 국성회 후원자 여러분! 이문주 신부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힘든 와중에서도 변함없는 기도와 후원을 보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 5월, 양재동 성당에서 국성회가 정식으로 발족하고 올해로 15주년을 맞이합니다. 저는 요셉의원 원장이신 고 선우경식 선생님의 유언을 받들어 2008년부터 요셉의원 원장직과 국성회 일을 함께 하게 되었고, 그때 국성회 사무실도 요셉의원으로 옮겨왔습니다.

2017년에 제가 원로사제가 되었고 요셉의원 원장에는 조해봉 신부님께서 임명되었습니다. 따라서 요셉의원 원장이신 조해봉 신부님께서 국성회의 업무도 담당하셔야 했는데, 주교님이나 조해봉 신부님께서 국성회 일은 제가 계속해 주기를 바라신다고 말씀하셔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2022년 2월 홍근표 신부님께서 요셉의원 담당으로 부임해 오셨고, 이제 홍신부님께서 국성회 일도 함께 하시게 됩니다.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는 모양입니다. 이제 저는 건강상의 이유로 국성회 담당사제 소임을 마치고자 합니다. 물론 그 동안의 경험으로 자문과 기도를 드리는 일은 기쁜 마음으로 계속하겠습니다.

국성회가 설립되기까지,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활동들은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기도에 힘입은 것이며,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신 주님의 자비와 놀라운 섭리입니다. 그동안 저의 부족함으로 여러분들의 염원에 충분히 응답드리지 못한 것은 사랑의 마음으로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간 알게 모르게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후원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온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국내외의 그늘진 곳에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국성회에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평화와 자비가 항상 여러분들과 가정에 깃들기를 기도드립니다.

종으신 하느님! 베푸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문주 올림 +



국성회 | 후원 현황 및 후원계좌

+ 후원해 주신 분들 - 일반 (2021년 12월~2022년 1월)

● 강상훈 ● 고현수 ● 권이상 ● 김금재 ● 김낙기 ● 김만길 ● 김명숙 ● 김명희 ● 김성권 ● 김영랑 ● 김영추 ● 김영환 ● 김윤순 ● 김은애
● 김진우 ● 김준희 ● 김태남 ● 김현경 ● 김현숙 ● 나삼균 ● 남태연 ● 문경호 ● 민영진 ● 박소향 ● 박언빈 ● 박종대 ● 방상준 ● 송미경
● 송보영 ● 신중진 ● 신해경 ● 양영실 ● 연은수 ● 오명순 ● 오세형 ● 오영신 ● 윤순자 ● 윤영순 ● 윤용식 ● 윤종구 ● 윤창현 ● 윤희정
● 이강득 ● 이미순 ● 이상현 ● 이신애 ● 이용애 ● 이유진 ● 이은행 ● 이장순 ● 이재청 ● 이정석 ● 이종대 ● 이지현 ● 이향희 ● 이현옥
● 이현창 ● 이현규 ● 이혜순 ● 임한미 ● 전대영 ● 정병욱 ● 조세익 ● 조웅덕 ● 조하영 ● 조현순 ● 주희숙 ● 진석실업 ● 최권욱 ● 최두혁
● 최명옥 ● 최문송 ● 최송원 ● 최원남 ● 최종숙 ● 하금태 ● 한동성 ● 홍성실 ● 황세희

+ 후원해 주신 분들 - 사제 및 단체 (2021년 12월~2022년 1월)

● 김경식 ● 김동호 ● 김승구 ● 김원호 ● 박우준 ● 박준병 ● 백성호 ● 오창선 ● 우엔반하오 ● 유경춘 ● 이계호 ● 이문주 ● 이철희 ● 임상무
● 정순택 ● 조인기 ● 최광희 ● 최명근 ● 최요안 ● 최정훈 ● 한정화 ● 홍인식 ● 익명희망자

+ 후원금을 처음 보내주신 분들 - 일반 (2021년 12월~2022년 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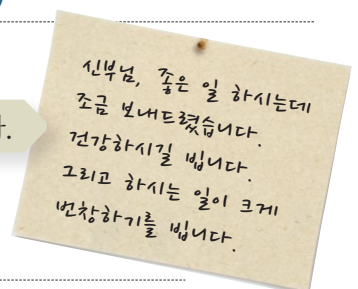
● 김범준 ● 남다현 ● 은혜상담소 ● 이숙자 ● 정의연 ● 한경택

+ 후원금을 처음 보내주신 분들 - 사제 및 단체 (2021년 12월~2022년 1월)

● 최덕기 ● 씨튼수녀회

※ 최덕기 주교님(전 수원교구장)이 격려 편지와 함께 1천만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 2021년 12월~2022년 1월 후원금 내역 : 36,484,000원



+ 국성회 후원 방법

1. 지로용지 신청

국성회 사무실(02-2676-9981)에 성함,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 지로용지를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2. 은행 송금

- 아래 은행의 계좌번호로 인터넷 뱅킹 송금/모바일 뱅킹 송금/은행창구 송금
- 자동 계좌이체의 경우 신분증, 도장, 통장을 지참하고 은행에 가서 아래 은행의 계좌번호로 이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신 뒤에 국성회 사무실 전화번호(02-2676-9981) 혹은 이메일(overseas-bible@hanmail.net)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우리은행	1005-801-003937	(재)천주교서울대교구
국민은행	1005-201-940450	(재)천주교서울대교구

+ 2021년 국성회 수지보고

2021년. 1월 1일 ~ 12월 31일

수입		지출	
항목	금액	항목	금액
후원금	159,246,000	국내외 성경후원비	174,582,967
이자수입	5,618,370	인건비	10,200,000
후원금(남수단우물)	1,125,370	우편요금	2,576,800
이자법인세 환급	1,503,530	'홀씨' 인쇄비	2,400,000
		소모품비	307,000
		전화요금	182,430
		지로수수료	7,200
		이자소득세	861,240
		전기세	96,100
		차기이월금 ¹⁾	-23,720,469
합계	167,493,278	합계	167,493,278

1) 성경지원비 증가로 인하여 23,720,469원의 손실이 발생하여 기초자본금에서 충당하였습니다.

「2021년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방법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 1 2020년도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기 이용자는 별도신청없이 2021년에도 이용가능
- 2 요셉의원 홈페이지를 통한 후원신청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별도신청 필요 없음
- 3 2021년도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신규신청자는 후원회에 주민번호 13자리 통보필요
➡ 전화, 문자, 카톡 채팅 가능

방법 2 요셉의원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력

- 1 요셉의원 홈페이지 Web ID가 있는 후원자
➡ 홈페이지 로그인 후 '기부금 영수증' 출력 메뉴 활용
- 2 휴대폰번호 또는 이메일 아이디가 등록되어 있는 후원자
➡ 홈페이지 상단 우측 '로그인' 메뉴 클릭 후 '로그인없이 납부내역조회' 메뉴 선택하여 후원자 인증 진행
➡ '기부금 영수증 출력' 메뉴 선택

※ 관련문의 : 요셉의원 후원회 070-4688-3416(직통전화/문자)

카톡 아이디 : 요셉의원

e-mail : donation@josephclinic.org / Fax 02-6919-1690

(※필리핀요셉의원 후원자는 직통전화 070-4688-3412 로 별도 문의)

♥ 요셉의원 후원 방법

1. 요셉의원에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요셉의원 홈페이지(www.josephclinic.org)의 '후원 신청' 혹은 '후원 안내' 메뉴의 '후원 신청'을 클릭해 들어간 뒤 왼쪽의 '정기후원(CMS)' 버튼을 누른 다음 후원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기존 일반 자동이체 회원 ● CMS 전환 희망자 포함).

2. 요셉의원에 전화로 신청하기

요셉의원 후원관리팀에 전화(070-4688-3416)를 걸어 담당자와 통화하면서 후원신청을 합니다(녹취를 통한 CMS 자동이체 신청).

3. 은행에 신청하기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시거나 신분증과 도장, 통장을 가지고 은행에 가셔서 아래 은행의 계좌번호로 이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동이체 신청을 하신 후에는 전화 (070-4688-3416) 또는 donation@josephclinic.org로 입금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기업은행	209-000118-01-010	서울가톨릭요셉의원
우리은행	172-066521-01-101	서울가톨릭요셉의원
국민은행	364-01-0000-976	서울가톨릭요셉의원
하나은행(구 외환은행)	111-13-04699-8	서울가톨릭요셉의원
하나은행	193-890037-13505	서울가톨릭요셉의원
우체국	010108-01-011536	서울가톨릭요셉의원

“소중한 봉사의 경험과 사연을 소개해 주세요”

“요셉의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있었던 감동적인 스토리를 모집합니다. 의료인, 환자, 보호자, 일반 봉사자 등 요셉의원과 관련된 따뜻한 봉사 경험담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 요셉의원 편집부 E-mail : info@josephclinic.org



환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잠정 중단합니다.



식사나눔

시간 매주 목요일 오후 3시~5시
장소 1층 식당

이·미용서비스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1시~3시
장소 1층 현관

목욕서비스

시간 매주 월 수 금요일 오후 1시~5시
장소 1층 목욕실

단주모임 (A.A 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30분~5시 30분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8시 30분
장소 4층 도서관

영화포럼

시간 매월 둘째 수요일
오후 1시 30분~4시
장소 4층 도서관

음악치료

시간 매주 목요일 오후 1시~3시
장소 4층 도서관

법률상담

시간 넷째 주 금요일 오후 7시~9시
장소 1층 봉사자실

성경공부

시간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장소 4층 휴게실

도서관 운영

시간 월, 화, 수, 금요일 오후 1시~5시
(화요일은 4시까지)미사
안내요셉의원 3층 경당에서는
월~금요일 미사가 봉헌됩니다.

월요일 : 후원자를 위하여

화요일 : 환자들을 위하여

목요일 : 자원봉사자들을 위하여

금요일 : 세상을 떠난 선우경식 원장과
후원자, 환자, 봉사자의 영혼을 위하여

+ 봉사자와 환우 분들을 환영합니다.